

# ‘담양사랑 상품권’ 인기 높다

## 6개월만에 판매량 17억원 돌파

## 주유소 등 가맹점도 1천곳 육박

담양군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첫 판매한 ‘담양사랑 상품권’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사랑 상

품권은 발행 6개월만인 최근 판매량이 17억원을 넘어섰다. 가맹점도 927곳에 달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발매 1개월만에 5% 할인제를 도

입, 소비자가 액면가보다 5% 싼값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민간단체인 담양군통합체육회 주도로 불기 시작한 지역 3사랑(가족·이웃·담양) 운동이 군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자리잡은 점도 한몫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상인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12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키로 했다.

또 관내 주유소 등 일부 업소에서

상품권 가맹점 부담률 3%에 부담을 느껴 상품권 취급을 꺼리고 있어, 다음달부터 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할인율 2%는 가맹점 부담률 1%, 상인협의회에서 보조하는 1%로 충당되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폐형 상품권 대신 전자식 카드도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평년농사 기원 지신밧기

장흥을 농업경영인회(회장 안규광)가 지난 22일 군청 앞 광장에서 지역 안경과 평년농사를 기원하는 지신밧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30여명의 회원들은 심시일반으로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군에 기탁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플라워 쇼’

### 전남도 농기원, 25~27일 도청에서

### 콜리부리 등 115개 품종 전시·직판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청에서 화훼 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해 ‘플라워 쇼(Flower Show)’를 개최한다.

21세기 남도 틈새화훼 연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발코니 실내정원 모델과 꽃 작품전시, 틈새화훼 전시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행사 기간동안에는 알스트로

메리아와 콜리부리 등 7종류의 꽃 115개 품종이 전시·직판된다.

또 일본 등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과 외국 종묘회사 투자 유치 상담도 전개된다.

한편 25일 오전 11~12시, 26일 12시~오후 1시에는 민재평 틈새화훼 연구회 회장의 ‘꽃과 어울린 라이브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 강진들 황금 한우 사업단

### 100여 축산농 참여 출범

천연 한약사료로 키운 ‘강진들 황금(黃苧) 한우 사업단’이 탄생했다.

지난 20일 공식 출범한 ‘강진들 황금 한우사업단’은 강진군내 100여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황금은 한방에서는 해열·이뇨·지사·이담과 소염제 등으로 쓰이며, 항균 효능이 뛰어난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황금이 주재료로 들어간 사료는 전남대 생물학과와 엘바이오텍이 공급한다.

사업단은 또 일반한우와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생산 과정을 담은 생산 이력추적시스템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진 한우 사업단 회장은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한우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고 우리 한우와 축산농가가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땅골 황토 정보화 마을

### 행자부 심사 평가 1위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2008년도 정보화 마을 신규조성사업’ 심사 평가 결과 땅골 황토 정보화 마을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땅골 황토마을은 마을 정보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자생적 운영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과 신활력 사업, 땅골 오로 캠프조성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위를 차지한 땅골 황토 정보화 마을은 상 사업비로 3억 원을 지원 받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봄기운 가득한 들녘

차가운 겨울비바람을 맞으며 함평군 현경면 평산리에서 농민들이 씨갈자를 파종한 뒤 비닐을 씌우고 있다. 갓 뿌려진 김자 씨앗은 비닐 속에서 튼실하게 자라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수확된다.

/연남스

## 뉴욕타임스 “전쟁 상흔 화해로 치유 세계인에 메시지”

### 경찰에... 빨치산에... 300여명 희생 영암 구림마을 주민들

## 합동추모제 열어 냈 기려

한국전쟁을 전후해 빚어진 극단적 이념갈등의 비극을 씻어내고 있는 영암 구림마을이 세계인의 가슴에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는 전하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 한국전쟁을 전후해 좌우의 이념갈등이 낳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영암

구림마을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전쟁의 와중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이념갈등으로 300여명의 희생자를 냈던 구림마을 주민들이 최근 수년간 당시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가지는 등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림마을은 해방 이후 밤에는 빨치산이 출몰해 주민들을 살해하고, 낮에는 경찰이 찾아와 빨치산에 협조한 주민을 색출하면서 밤낮으로 죽고 죽이는 살육이 반복된 곳이다.

1950년 10월 7일에 빨치산이 남한의 경찰과 연계된 사살과 기독교

인 등 28명을 살해했고, 10일 후엔 경찰이 풀러와 무고한 주민 90여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림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마을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내놓으면서 전쟁 당시 희생자들을 알리는데 15쪽을 할애한 데 이어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추모제도 시작했다.

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져 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추모공원을 2010년까지 건립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구림마을 기사는 뉴욕타임스 자매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영자 일간 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지에도 함께 실렸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새 얼굴

## “법정 중심의 재판 정착 힘쓰겠다”

### 구회근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친절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법원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구회근(40)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은 “민·형사소송 재판에 있어 법정 중심의 재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광양 출신인 구 지원장은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96년 입관, 독일 프랑크푸

르트대학에서 연수했으며 대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녀가 있으며 테니스와 축구, 탁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왕인농업대’ 신입생 모집

### 영암군, 1년 과정 40명

영암군이 최정에 농업인 육성을 위한 ‘왕인농업대학’ 신입생 40명을 모집한다.

‘왕인농업대학’은 오는 3월 개강하며 영암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 중 농업인 상담소 지도사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입학지원자는 오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합격자는 3월 10일 발표한다.

평생교육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왕인농업대학’은 1년 과정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영암기술센터에서 연간 20회의 교육이 실시된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10-722-0100

1021530-9318